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미숙 · 전민경

가야대학교, 조교수

Influence of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Kim, Mi Sook · Jeon, Min Kyung

Assistant Professor, Kaya University, Gimhae,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their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73 nursing students in B and K metropolitan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rch 2 to March 25,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v 21.0. **Results:** The mean score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ere 4.56 ± 0.38 , 3.26 ± 0.31 , 2.91 ± 0.20 , respectively.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patient rights ($r=.38$, $p<.001$) and ethical values ($r=.25$, $p<.001$).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ere the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beta=.36$, $p<.001$) and ethical values ($\beta=.13$, $p=.023$).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al program should include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and ethical values to foster biomedical ethics awareness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Patient rights, Ethics, Bioethics, Nursing, Stud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보건의료현장에 인간의 건강수준 향상과 생명 연장과 같은 눈부신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태아 진단, 인공임신중절, 존엄사 및 장기이식과 같은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1]. 이러한 생명윤리적 문

제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의료현장과 사회 전반에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2].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건강 관련 맥락과 생물과학과 관련된 맥락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도덕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3].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인공임신중절, 존엄사, 장기이식, 연명치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유지와 고통경감 사이의 갈림길에서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주요어: 환자권리, 윤리, 생명의료윤리, 간호, 학생

Corresponding author: Jeon, Min Kyung (<https://orcid.org/0000-0002-0455-062X>)

50830 208, Samgye-ro, Gyeongnam-do, South Korea,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Tel: +82-55-330-1043 Fax: +82-55-330-1142 E-mail: angi99@hanmail.net

Received: 3 April 2018 Revised: 28 April 2018 Accepted: 29 April 2018

지식을 가지고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상담자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4,5]. 이러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보건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틀을 제공한다[6]. 그러므로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그리고 확고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함양은 간호 전문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윤리적 가치관은 인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이념을 의미한다[7].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법적, 윤리적 간호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지식이 필요하다[8]. 임상 실무현장에서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갈등이 요구될 때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간호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질적 간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9]. 간호대학에서의 간호윤리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은 임상 실무에서 간호사로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므로[10],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11].

최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된 환자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2].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환자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와, 진료계약에 근거하여 법률상에 명시된 환자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다[12,13]. 간호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환자 인권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체계적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13]. 이처럼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인권 옹호자 및 교육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예비 간호사들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현재의 사회현상을 반영할 때 필요하다[12]. 또한 간호대학의 윤리교육과정은 환자권리보다는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연구[13], 임상적 의사결정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환자, 가족, 간호사와 의사의 인지도 연구[14] 등이 있어서,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의식[6,15],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직무만족

도 및 업무수행과의 관계[16],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7-19],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4,5],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2]을 본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파악하는데 기본 전제인 간호 종사자 측면에서의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측면에서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을 같이 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과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고,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고,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와 K시에 소재한 3개의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2,3,4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 2일에서 3월 25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기 위해 예측인자를 11개

로 했을 때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15, 검정력 .90을 위한 최소 표본 수는 152명이었다. 그리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분석에서 그룹수 4,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25, 검정력 .90을 넣었을 때 232명으로 본 연구는 필요한 연구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설문지 280부를 배부하였고, 배부한 설문지 중 잘못 표기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7부를 제외한 273부(99.3%)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연구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Hwang과 Choi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2]. 본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4문항),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8문항), 비밀 및 사생활 보장권(4문항), 진료를 받을 권리(4문항), 손해배상 청구권(2문항), 보건의정책 참여권(2문항)의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환자권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도구는 Lee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Kwon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7,10].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인간 생명에 관한 영역(9문항),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영역(9문항), 간호 업무 관계영역(8문항), 협동자와의 관계영역(4문항)의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리주의란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행위의 간호윤리 문제를 초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의무주의란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행위의 간호윤리 문제를 초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과 도덕을 말하는 것으로 의무주의에 속하는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도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된 문항 3개는 제거하여, 인간 생명에 관한 영역 8문항,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영역 7문항, 간호 업무 관계영역 8문항, 협동자와의 관계영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찬성' 1점에서부터 '반대' 5까지 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9$ 이었다.

3)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연구도구는 Kwon이 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0]. 본 도구는 9개의 하위영역으로,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의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인간생명공학의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반대' 1점에서부터 '찬성' 4점까지 주어 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0$ 이었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124)을 받은 후, 대상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지에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본 설문지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30명(84.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0.90±2.22세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64명(60.1%), 종교가 있는 경우가 109명(39.9%)이었고 학년은 3학년 77명(28.2%), 4학년 72명(26.4%),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62명(22.7%)이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가 150명(54.9%), 임

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3명(45.1%)이었다. 본인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가 125명(45.8%), 본인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8명(54.2%)이었다.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 역할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3명(70.7%)이었다. 간호윤리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3명(56.0%), 생명윤리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8명(79.9%)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평균은 4.56 ± 0.38 점(5점 만점), 윤리적 가치관 평균은 3.26 ± 0.31 점(5점 만점), 생명의료윤리의식 평균은 2.91 ± 0.20 점(4점 만점)이었다(Table 2).

Table 1.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Ethical Value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3)

Characteristics	n (%)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Ethical value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SD	t or F (<i>p</i>) Scheffe	M±SD	t or F (<i>p</i>) Scheffe	M±SD	t or F (<i>p</i>) Scheffe
Gender							
Male	43 (15.8)	4.60±0.31	0.86	3.30±0.33	0.98	2.91±0.18	0.10
Female	230 (84.2)	4.55±0.40	(.388)	3.25±0.33	(.328)	2.91±0.20	(.923)
Grade							
1st ^a	62 (22.7)	4.56±0.34		3.37±0.29		2.93±0.20	
2nd ^b	62 (22.7)	4.57±0.41	0.57	3.22±0.33	3.72	2.95±0.23	2.41
3rd ^c	77 (28.2)	4.51±0.38	(.637)	3.24±0.30	(.012)	2.89±0.15	(.067)
4th ^d	72 (26.4)	4.59±0.41		3.21±0.30	a>d	2.87±0.19	
Age (yr)							
18-19 ^a	83 (30.4)	4.55±0.37		3.34±0.30	4.28	2.93±0.21	
20-21 ^b	107 (39.2)	4.55±0.38	0.05	3.22±0.31	(.015)	2.92±0.19	2.68
≥22 ^c	83 (30.4)	4.57±0.38	(.951)	3.22±0.31	a>b,c	2.87±0.19	(.071)
Religion							
None	164 (60.1)	4.58±0.40	1.22	3.24±0.32	-0.86	2.89±0.20	-1.46
Have	109 (39.9)	4.52±0.37	(.224)	3.28±0.30	(.392)	2.93±0.18	(.145)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one	150 (54.9)	4.54±0.38	-0.98	3.30±0.32	2.70	2.93±0.21	2.39
Have	123 (45.1)	4.58±0.38	(.329)	3.20±0.29	(.007)	2.88±0.17	(.018)
Experience of hospital admission							
None	125 (45.8)	4.58±0.37	0.98	3.27±0.31	0.67	2.89±0.18	-1.47
Have	148 (54.2)	4.54±0.39	(.328)	3.25±0.31	(.506)	2.92±0.21	(.144)
Experience of caregivers with hospitalized family							
None	80 (29.3)	4.63±0.39	2.02	3.24±0.30	-0.52	2.91±0.22	0.27
Have	193 (70.7)	4.53±0.38	(.044)	3.26±0.32	(.605)	2.90±0.19	(.785)
Experi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None	120 (44.0)	4.52±0.39	-1.30	3.28±0.31	1.00	2.93±0.21	2.05
Have	153 (56.0)	4.58±0.38	(.196)	3.24±0.31	(.318)	2.89±0.18	(.041)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None	55 (20.1)	4.52±0.36	-0.75	3.20±0.34	-1.76	2.92±0.24	0.64
Have	218 (79.9)	4.57±0.39	(.457)	3.27±0.30	(.080)	2.90±0.18	(.52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간의 차이는 Table 1과 같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의 보호자 경험에 있는 경우($t=2.02, p=.04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윤리적 가치관은 학년($F=3.72, p=.012$), 연령($F=4.28, p=.015$), 임상실습 경험($t=2.70, p=.007$)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한 결과 학년에서는 '1학년'군이 '4학년'군보다, 연령에서는 '18-19세'군이 '20-21세'군과 '22세 이상'군보다 윤리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임상실습 경험($t=2.39, p=.018$), 간호윤리 수강 경험($t=2.05, p=.04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r=.38, p<.001$), 윤리적 가치관($r=.2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임상실습 경험, 간호윤리 수강 경험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

Table 2. The Level of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Ethical Value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the Participants (N=273)

Variables	Items	M±SD	Min	Max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Total)	24	4.56±0.38	3.13	5.00
Right to pursu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to equality	4	4.70±0.41	3.25	5.00
Right to know and make autonomous decision	8	4.41±0.47	3.00	5.00
Right to receiv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4	4.65±0.44	3.00	5.00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4	4.66±0.42	3.00	5.00
Right to claim compensation	2	3.24±0.72	1.50	5.00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health policy	2	4.43±0.66	2.00	5.00
Ethical values (Total)	27	3.26±0.31	2.33	4.22
Human life area	8	3.00±0.54	1.63	4.25
Nurse-patient relation area	7	3.60±0.49	2.29	4.71
Nurse-nursing task relationship area	8	3.25±0.42	1.63	4.50
Nurse colleague relationship area	4	4.09±0.58	1.75	5.00
Biomedical ethics awareness (Total)	49	2.91±0.20	2.41	3.55
Right to life of fetus	5	2.92±0.48	1.60	4.00
Artificial abortion	6	2.85±0.33	1.00	4.00
Artificial insemination	7	2.97±0.37	1.57	4.00
Prenatal diagnosis of fetus	5	3.02±0.42	2.00	4.00
Right to life of newborn	5	3.32±0.43	2.20	4.00
Euthanasia	5	2.56±0.38	1.80	4.00
Organ transplantation	4	2.69±0.40	1.00	4.00
Brain death	5	2.84±0.36	1.80	4.00
Human biotechnology	7	2.91±0.35	1.71	4.00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73)

Variables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r (p)	Ethical values r (p)	Biomedical ethics awareness r (p)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1		
Ethical values	.27 (<.001)	1	
Biomedical ethics awareness	.38 (<.001)	.25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the Participants

(N=273)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 R ²	F (p)
(constant)	1.90	0.16		12.05	<.00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0.03	0.03	-.08	-0.94	.348			
Experi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0.03	0.03	-.08	-0.98	.328	.19	.18	15.92 (<.001)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0.18	0.03	.36	6.26	<.001			
Ethical values	0.08	0.04	.13	2.29	.023			

Dummy variables†(1: yes, 0: no)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임상실습 경험과 간호윤리 수강 경험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15.92, p<.001$),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 분포성,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의 범위는 0.41~0.9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인자(VIF)는 1.09~2.43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은 2.28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beta=.36, p<.001$), 윤리적 가치관($\beta=.13, p=.0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0%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확인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4.5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wang과 Choi[12]의 연구에서 4.53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도구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Kim[21]의 연구에서 4.66점(5점으로 환산)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 결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와 평등권에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Hwang과 Choi[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Kim[21]의 연구에서 적법한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있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아직 임상실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 환자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 수업이나 사회의 의료관련 이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로 사료된다. 그러나 환자권리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간호대학생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지속되어 관련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정도는 평균 3.26점(5점 만점)으로 대체로 중립적 관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영역 중 협동자와의 관계 영역(4.09점)에서 의무주의적 관점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18]의 연구에서 평균 3.38점으로 나타난 것과 하위 영역 중 협동자와의 관계 영역에서 4.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eo 등[22]의 연구에서 평균 3.43점, 협동자의 관계 영역 3.91점으로 의무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 영역 중 협동자와의 관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의무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환자를 돌보는 임상현장은 다양한 관련 전문직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일면에서는 서로의 윤리적 실천을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도 작용하므로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윤리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23,24]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2.91점(4점 만점)으로 하위 영역 중 신생아의 생명권(3.32점)이 가장 높았고, 안락사(2.56점)에 대한 영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5]의 연구에서 평균 3.08점, 하위 영역 중 태아 생명권이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락사의 의식 수준이 평균 2.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함께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인식의 변화로 인간 생명이 신성하고 침해될 수 없다는 가치만큼 인간의 삶의 질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과 인간의 자율성 원리가 상충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의 보호자 경험 유무($t=2.02, p=.04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Hwang과 Choi[12]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상자의 가족 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Hwang과 Choi[12]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상자 병원에 입원한 가족의 보호자 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Hwang과 Choi[12]의 연구에서 입원한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대상자 수가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충분한 대상자 수의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은 학년($F=3.72, p=.012$), 연령($F=4.28, p=.015$), 임상실습 경험($t=2.70, p=.007$)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학년에서는 '1학년'군이 '4학년'군보다, 연령에서는 '18-19세'군이 '20-21세'군과 '22세 이상'군보다 윤리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나 의무론적 윤리적 가치관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의 연구결과에서 윤리적 가치관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후검정 결과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의무론적 윤리적 가치관을 띄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후의 윤리적 가치관을 비교한 Park[27]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 전보다 임상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공리주의적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윤리적 가치관과 다르게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접함으로써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고 윤리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지속적 윤리관련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임상실습 경험($t=2.39, p=.018$), 간호윤리 수강 경험($t=2.05, p=.04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서 의무주의적 성향을 나타냈으며, 간호윤리 수강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간호윤리 수강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리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이는 Lim과 Park[18]의 연구결과에서 학년, 생명의료 윤리 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유사하였으나 3.4학년이 2학년보다, 생명의료윤리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의무주의적 생명의료윤리의식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그러나 Kim과

Lee[25]의 연구결과에서 4학년이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다양한 실제적 윤리문제를 접함으로써 윤리적 기준에 혼돈이 초래되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1학년 보다 공리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Kim과 Lee[25]는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며[18],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의료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 보다는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증진에 목적을 둔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함[26]을 내포한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고려한 추후연구를 통해 올바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17,19]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이었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18%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 윤리적 가치관이 밝혀진 Kim[2]과 Kwon[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높을 경우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의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변인은 도덕적 민감성, 윤리강령 인식 정도, 종교, 종교 활동, 윤리적 가치관이었으며, 설명력은 10.8%이었다. 또 Kwon[17]의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변인은 윤리적 가치관,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종교, 연령, 생명의료윤리 청취경험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8%이었다. 이와 같이 생명의료윤리의식 관련 변인들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여러 관련 변인들에 대한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분석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인권에 대한 정의, 환자의 인권, 의료진의 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12,13]으로 임상현장에서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이 겪게 되는 생명의료윤리 관련 딜레마와 윤리적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에 필요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환자권리 인식의 관련 변인에 대한 추가적 연구와 더불어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환자의 인권 침해 사례 및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 등의 환자 인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립을 위해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과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확인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간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년 진급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사례를 적용하여 윤리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ORCID

Kim, Mi Sook <https://orcid.org/0000-0002-3509-9499>
Jeon, Min Kyung <https://orcid.org/0000-0002-0455-062X>

REFERENCES

- Kong BH, Gu IH, Kim SD, Kim JK, Um YR. Bioethics. 2nd ed. Seoul: Hyunmoon; 2017. pp. 1-2.
- Kim MS.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3):382-392. <http://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Gorovitz S.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Monist. 1977;60(1):3-15.
- Kim GM, Sung KS, Kim EJ.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7;23(3):292-299. <https://doi.org/10.4094/chnr.2017.23.3.292>
- Kim EU, Seo EH, Jung EY.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7;23(1):1-8.
- Ha JY, Kim DH, Hwang SK.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15(2):216-224. <http://doi.org/10.5977/jkasne.2017.23.4.389>
- Lee YS.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0;20(2):249-270.
- Chitty KK, Beth BP.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and challenge. 5th ed. St Louis, MO: Saunders Elsevier; 2007. pp. 522-525.
- Park JH, Kim YS, Kim WO.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2009;12(3):251-260.
- Kwon YM.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2;8(1):17-28.
- Jeong GS.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11):5672-5681. <http://doi.org/10.5762/KAIS.2013.14.11.5672>
- Hwang JY, Choi HK.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4):455-466. <http://doi.org/10.5977/jkasne.2015.21.4.455>
- Lee KH, Chong SW. A study on the status and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nursing colleg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2013;8(1):111-140.
- Park AR, So HS, Chae MC. Recognition of patients, families, nurses, and physicians about clinical decision-making and biomedical ethics. Asian Oncology Nursing. 2014;14(1):23-31. <http://doi.org/10.5388/aon.2014.14.1.23>
- Kim MO.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6):4048-4055. <http://doi.org/10.5762/KAIS.2015.16.6.4048>
- Jeon MK, Moon MY, Jaung AH.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2013; 14(1):27-47.
- Kwon YH. Factor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 Nursing. 2009;23(2):262-272.
18. Lim, MH, Park CS.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7):4423-4431. <http://doi.org/10.5762/KAIS.2014.15.7.4423>
 19. Chong UR, Lee YH. Affecting factors of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4):389-397. <http://doi.org/10.5977/jkasne.2017.23.4.389>
 20. Kwon SJ.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Focused o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3. pp. 1-78.
 21. Kim CW. A study on awareness of differences in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patients' rights [master's thesis]. Kangwon-d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5. pp. 1-56.
 22. Seo HE, Doo EY, Choi SJ, Kim MY. Influence of information literacy and perception of patient data privacy on ethical values among hospital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1):52-62. <http://doi.org/10.1111/jkana.2017.23.1.52>
 23. Son YS. The Ethics of nurses from the standpoint of doctor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2007;10(2):125-134.
 24. Mannix J, Wilkes L, Daly J. Good ethics and moral standing: A qualitative study of aesthetic leadership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15;24:1603-1610. <http://doi.org/10.1111/jocn.12761>
 25. Kim EH, Lee EJ. A Comparison of first-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biomedical ethic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2;15(1):78-95.
 26. Choi KS. Teaching medical ethics and critic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2004;7(2):232-246.
 27. Park MH. The Patterns of change in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6(2):199-217.